



2020. 8. 5. 배화여고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제막식 기념촬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희선 이사장, 송형중 대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 배화여고 학생들

항일여성

9호 | 9월 발간



조선여성독립운동의 만달(대모)

김마리아(1892-1944)

* 『여성이 여성을 노래하다』(늘품플러스, 2015)에서 조금 다듬었음.

본회 • • • • • 소장산영속 • • • • •

황해도 장연 소래
명문가 대지주
기독교 집안에서
큰 별이 탄생하였다

세 살에 아버지가
열 네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나
할머니의 깊은 신앙
남녀 똑같이 교육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교육열 담긴 유언
언니 김함라와 미림의
배려 마리아는 서울로
유학

숙부 김윤오, 김필순
고모 김순애, 김필례
조선의 내로라하는
독립운동 선구자들이
마리아를 에워쌌다
그 중 김마리아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국내외에서 받은
신교육의 수혜자로
여성교육, 항일독립에
일생을 바친 김마리아

정신여학교 졸업 후
광주 수피아 여학교,
정신여학교 교사하다
두 번이나 일본 유학
'동경여자유학생
친목회' 회장을 맡아
'『여자계』' 발간
'2·8도교독립선언대회'
남자와 똑같이
독립운동에 나서야
한다 솔선수범했다.

3.1혁명 직후
수개월 감옥 생활 끝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전국 조직으로 확대 개편
남성 못지않은 적극적
활동꿈꿨으나 회원의
배신, 밀고, 전국에
닥친 검거선풍

징역 3년형
혹독한 옥고 치르다
병보석 요양 중
중국 상해로 탈출
후유증과 씨름하며

상해임시정부대의원
남경 금릉대학서 공부

더 나은 독립의 길
실력 양성의 푸른 꿈
그리며 미국으로 망명
일하며 공부하며
사회활동, 민족운동

10년간 미국
뉴욕의 신학대학원
사회학 교육행정학
신학과 종교교육학 등
치열하게 부대끼며
여자들도 위국충정
사회 일하겠다는 일념
뉴욕 근화회 조직활동

1932년 귀국 후
조선의 현실을
미국에 비추어
여성과 조선의 독립에
헌신할 뜻을 밝혔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으로 농촌계몽
운동

기독교 여성독립운동
교회의 남녀차별 비판
하며 역사의식, 애국심
고취

장로교전국총회
신사참배 거부한
김마리아 여자신학원
폐쇄되었다

여성의 독립적 삶과
조국 독립을 꿈꾸며
민족과 신앙을 지켜낸
대한의 딸 김마리아
충명하고 강직하여
정의로운 뜻으로 일관
1944년 생을 다하도록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혼신을 다하였다
자신의 푸른 꿈을
고이고이 간직한 채
하늘나라 파랑새로
 훨훨



목차

- 02 **조선여성독립운동의 딸(대모) 김마리아(1892-1944)**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신 영 숙
- 04 **인사말** 이사장 김희선
- 06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 배화여고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제막식
 -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랩 대회
 -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독백 대회
 -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시나리오 공모전
 - 제1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공모전
 -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기념식 및 시상식
 - 문화 예술 공모 각 분야별 수상자 참가 소감문
(랩 대회, 독백 대회, 시나리오 공모전, 초상화 공모전)
 - 주제공연 〈여명 1919〉
 -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
 -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항일에서 통일로”
 - 항일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회 회원/역사교사 김현숙 기행문
 - 〈여명 1919〉 배우 전지윤 기행문
 - 독백 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안기현 기행문
- 37 **연대 활동**
- 39 **사업 소식**
- 41 **광주전남지회 활동**
- 43 **후원 회원 명단**

발행일 2020년 9월 통권 9호 발행인 김희선 편집위원 김수미 김희선 박창식 송형중 신영숙 이은주
발행처 (025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용두동 232-20) 사숙재회관 402호 디자인 인쇄 디자인포인트

- 후원안내 / 회원가입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01-0230-6110-11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가입문의 : 전화 02)924-0660 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 홈페이지 http://www.herstorykorea.org/
카페 https://cafe.naver.com/herstory030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erstorykorea/

인사말



이사장 김희선

“항일여성의 발자취를 찾는 대장정!”

항일여성 9월호 발행을 준비하려고 보니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전반기 사업이 크게 진행된 것이 없어 매우 아쉽고 답답한 마음과 후회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그간의 사업을 돌아보면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를 통해 배화여고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제막식에 이어 랩/독백 대회, 시나리오/초상화 공모전 등등의 사업, 이러한 것들을 금년 안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에 적은 자부심이나마 갖게 된다.

특히 금년 사업으로는 ‘배화여고 항일여성독립 운동상’을 세우는데 나름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첫걸음부터 배화여고 측에서는 교정에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건립에 부정적 입장이였었다. 애초 만남에서부터 긍정적 이야기를 못 듣고 교정을 나올 때 의외의 반응에 놀랐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께서 항일여성 독립운동가상을 세워도 된다는 기쁜 소식. 급히 취지문을 쓰면서 감격했던 순간을 남달리 기억된다.

2014년 항일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그 첫걸음을 디딜 때 과연 이 단체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 투쟁한 역사적 삶!

그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사실 이 고민은 하루같이 우리 사업회의 과제라 하겠다.

이제 이런 사업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청소년 세대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작품의 공감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높혀간다고 본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획했던 사업은 나름으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0월 9일부터 <항일여성 초상화 해외전시사업 - 2020년 미국 전시회>는 해외에 계신 교민들에게 우리나라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활동을 알림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갖게 하려 한다.

<항일여성 초상화 해외전시사업 - 2020년 미국 전시회>는 뉴욕에서 10월 9일-11일까지 진행되고, 필라델피아에서 10월 14일-16일까지, 마지막으로 워싱턴에서 10월 19일-21까지 진행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해외에 계신 교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긍지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으로 해외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힘든 삶의 발걸음이 당당해지시길 기대한다.

이사업을 책임지고 실행하는 과정에 성심을 다하신 송형중대표와 양혜경, 남상만 두 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역사를 산다는 것은 그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늘 질문하며 그 물음에 몸으로 답하는 삶이 아닌가 한다.

항일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회의 이 시대 존재 이유와 역할, 그 책임에 한치의 빈틈없는 발걸음을 오늘도 내딛는다.

배화여고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제막식

| 일시 2020년 08월 05일 10:30 | 장소 배화여자고등학교 기념관

배화인의 독립운동 열정은 식지 않았다 2020년 제75주년 광복절에 앞선 8월 5일 배화여고 기념관에서는 '배화여고 항일 독립운동 여성상' 제막식이 열렸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는 한복 차림의 당시 여성과 교복의 지금 여성의 모습 '혁명 전야'를 형상화한 이 여성상은 2019년 서울 정동 배재 어린이공원에 최초로 건립된 후 같은 해 12월 13일 충청남도 홍성시에 건립된 후 이어 세 번째 건립하게 되었다. 100년 전 3월 민족의 독립을 외치며 만세 시위를 한 배화여고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축사



건립취지문 낭독



기념촬영 중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희선 이사장,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 배화여고 학생들

배화여고 독립운동가 24인 명단

김경화, 김마리아, 김성재, 김의순, 문상옥, 박경자, 박신삼, 박양순, 박하경, 성혜자, 손영선, 소은명, 소은숙, 안옥자, 안희경, 왕종순, 윤경옥, 이남규, 이수희, 이신천, 이용녀, 지은원, 최난씨, 한수자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랩 대회



| 수상자

대 상 전진우&홍윤기

최우수상 이지원 우수상 월슨&현지, 박주용 장려상 P&N크루, 이기은, 손민성

| 축하공연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랩 대회 대상 수상자 ▶
'오수환' 축하공연



“랩으로 되살아나는 항일여성독립운동”

| 일시 2020년 8월 11일 | 장소 공간 아울 소극장

|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랩 대상 수상곡 가사

무궁화

- 전진우 & 홍윤기

난 대한민국 국민 내 성별은 강인한 무궁화임
 누구보다 강렬한 애국심 조국의 위험 앞에 아내 또는
 어머니 난 잠시 내려놓다 태극기를 집어 든다
 나이는 묻지 말거라 난 열네 살에 만세를 외쳤고
 예순하나에도 총을 들었다 다친 자들을 다시 살려
 내 굶주리는 자를 맥여 보살피며 나는 그들을 지켰네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걱정하진 말거라
 내가 단단한 버팀목이 되겠다 내 피에 흐르는 자유는
 후회 없이 버린 술방울. 붉은 씨의 이름은 작은 바른 꿈을 지닌
 이의 작품 지옥 같은 시간, 빛을 따라 오롯이 걸어온 이의 빛깔
 무궁화를 닮았군 푸른 기색 위 그 아픔 비교 못 해
 날씨 거세도 끝엔 부리를 내려
 암수 하나 된 꽃의 가치는 일백 중 백
 누가 부수는가에 대해 입을 맞추네 거리에 만세를
 부르는 이들은 누구의 딸이자 어머니 우린
 그 자식일세 무궁화 무궁무진한 태극기와 무궁화
 무궁화 무궁무진한 태극기와 무궁화
 please god embrace their soul
 we are son of the soldiers,
 blood of the freedom
 (신이시여 그들의 영혼을 품으소서
 우리는 전사들의 아들이며
 자유의 피입니다)

please god embrace their soul
 we are son of the soldiers
 blood of the freedom
 (신이시여 그들의 영혼을 품으소서
 우리는 전사들의 아들이며
 자유의 피입니다)
 자유의 값을 편하게 누리는 내게 이자까지 쳐서 보답하리
 내 첫 번째 부름은 툭 뱉어내야지 바래가는 숨. 가사 마디에
 그들을 기리며 표현하리 내 자그마한 꿈. 희생한 이들에게
 영광을 내 자식들에게는 기억을 남길 작품. 기억에 남는다면
 난 그저 조금의 감사 정도만 표현할 뿐.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을
 거부 미련은 내게 독이 될 뿐. 변절자들을 보았고 잔혹한 현실 속
 아픔. 그때마다 속으로 되새기네 난 독립투쟁의 한 문구.
 피어나는 미래를 위해 빼앗긴 걸 찾을 것
 난 고통 속에 죽더라도 꺾이지는 않을 것
 비겁하게 나 구걸하면서 연명하지는 않아 가자
 마땅히 옳은 일 하였으니 더 당당하게 나 죽을 것
 무궁화 무궁무진한 태극기와 무궁화
 무궁화 무궁무진한 태극기와 무궁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이름들
 또한, 성별로 치우쳐서 바라보면 안 됨을
 시간의 무더짐 속에서 지켜내야 할 것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 따윈 없음을

| 곡 소개

항일독립운동을 하신 여성 애국지사분들을 무궁화에 빗대어 곡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총 2명이 랩을 하며, 1명은 직접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나머지 1명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점으로 곡을 구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며 그에 대한 두 래퍼의 태도를 마지막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끌어내고자 독립문을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 잡았습니다.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독백 대회



| 수상자

대 상 김미성

최우수상 안기현 우수상 이정은, 박가은 장려상 최희라, 신유진, 김용진

“독립운동가, 마음의 소리를 듣다”



| 일시 2020년 8월 12일 | 장소 공간 아울 소극장

| 독백 대회 대상 수상자 대본

MR을 통해 남자의 더빙된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 독립이라고 선동하는 몰지각한 폭동을 엄중히 처리함은 치안상 부득이한 것임을 알고, 망동하는 무리를 따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일 뿐이니, 조선 독립이라는 허설에 희망을 가지지 말고 만세운동을 따르지 말라.....”

(독백 시작)

“슬프고 비통하다. 저 일본이 침략해,, 형식에 불과한 합방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킨 것도 모자라 일본의 세력에 아부하고 조국의 흥망과 이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런 경고문이나 올리다니..! 짓밟고 뺏고 죽이고,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다 죽어간 가족들을 떠올릴 때 피눈물로 외쳐 보았다 대한 독립 외쳐 보았다. 그 것이 어찌 허설이란 말인가. 비폭력적인 만세운동이 어찌하여 살육과 도적질을 일삼는 저들에게 망동하는 무리란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내 조국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우리가 어찌하여 몰지각한 폭동이란 것인가! 한 민족은 한 조각의 권리라도 이민족에게 넘길 수가 없고, 한반도에 있는 한 뼨의 땅이라도 이민족이 점령할 권리가 없으며, 한민족 가운데 어느 한 백성에게라도 이민족이 간섭할 까닭이 없다. 항일에 남녀가 따로 있나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올바른 도리를 실천한다면 이천만 동포와 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니 어찌 한 몸을 아깝게 여기겠는가? 살아서는 독립의 깃발 아래 생기고 힘찬 새로운 국민이 되어 보고, 죽어서는 저승에서 이러한 여러 선생님들과 내 가족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의무가 아니겠는가? 동포여! 동포여!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아니하고 일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이오. 동포 동포여! 우리 함께 외쳐보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만세!!”

- MR을 통해 남자의 더빙된 목소리가 나온다.

“배후가 누구냐”

“새벽닭이 누가 시켜서 울디까 때가 되었으니 우는 것이지, 우리도 독립의 때가 되어서 쫓기하였을 뿐이오.”

| 작품 소개

제가 항일 여성이었다 면을 가정해 실제 독립운동가의 명언을 인용해 미래의 대한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독백을 표현했습니다.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시나리오 공모전



| 수상자 명단

최우수상 길혜연 (북두칠성의 목소리) **장려상** 김유정 (화로)

| 최우수 작품상 시놉시스

북두칠성의 목소리 시놉시스

- 길혜연 작

“이중 삼중으로 억눌리고 질식하는 여성들의 운명은 언제까지든지 기구만 하구려. 정치적 압력은 우리들의 직접적인 투쟁 대상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건 조선의 남편들입니다.”

대한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여성 해방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한 인물이 있다. 기생이었던 그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계기로 ‘금죽’이라는 기생으로서의 이름을 버리고 ‘정칠성’ 일곱 개의 빛나는 별(북두칠성)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투쟁의 길을 걷게 된다.

자신의 이름 뜻처럼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들을 위해 밝은 별처럼 빛났던이다. 정칠성은 자신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이들 ‘조선인 여성’을 위해 싸웠다. 일본에도 같은 조선인 남성에게도 무시당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천한 신분, 여성, 조선인 모든 약자성을 가졌지만 정칠성은 굴복하지 않았다. 운동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민족 정체성은 되찾았으나 여성의 권리는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다. 이 작품에는 오늘날의 여성을 보여주는 ‘강한별’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사생활 보호가 지켜지지 않는 배우로서의 삶, 특히 ‘여배우’로서 요구받는 수많은 것들이 한별을 억압한다. 어느 날 한별은 광장에서 여성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본다. 만연한 여성 혐오를 알리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저항하는 이들을. 자신의 의사 없이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왔던 한별은 그제야 그동안 무시해왔던 문제들에 눈을 뜨게 된다.

세상의 모든 차별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함에서 기인한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탄압한 일본의 만행들도 영토싸움과 정치적 목적을 떠나 차별로 인한 것이었다. 차별은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칠성과 강한별은 다른 시간 속에서 함께 연대하는 인물들이다. 이 작품을 본 많은 ‘우리’들이 이 두 여성과 함께 연대하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기 위해

“그날의 역사, 기억, 공감, 행동하다”



| 시나리오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작품소개

북두칠성의 목소리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끝나지 않은 독립”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 민족 정체성을 되찾기까지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다. 일본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에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또 다른 독립을 외친 이가 있었다. 정칠성. 기생이었던 그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계기로 기생으로서의 생활을 끝내고 ‘정칠성’ 일곱 개의 빛나는 별(북두칠성)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정칠성은 자신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이들 ‘조선인 여성’을 위해 싸웠다. 일본에도 같은 조선인 남성에게도 무시당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여성 중에서도 무산계급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힘썼던 사회주의자 페미니스트였다. 자신의 이름 뜻처럼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들을 위해 밝은 별처럼 빛났던이다. ‘독립운동’은 오늘날의 우리가 단지 기억해야만 하는 먼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다.

운동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민족 정체성은 되찾았으나 여성의 권리는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다. 이 작품에는 오늘날의 여성을 보여주는 ‘강한별’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사생활 보호가 지켜지지 않는 배우로서의 삶, 특히 ‘여배우’로서 요구받는 수많은 것들이 한별을 억압한다. 어느 날 한별은 광장에서 여성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본다. 만연한 여성 혐오를 알리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목소리 내는 이들을.

자신의 의사 없이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왔던 한별은 그제야 그동안 무시해왔던 문제들에 눈을 뜨게 된다.

“그날의 역사, 기억, 공감, 행동하다.”

공모전 주제에 맞게 과거에도 지금도 싸우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차별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함에서 기인한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탄압한 일본의 만행들도 영토싸움과 정치적 목적을 떠나 차별로 인한 것이었다. 차별은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대’하고 ‘목소리’ 내야 한다. 정칠성과 강한별은 다른 시간 속에서 함께 연대하는 인물들이다. 이 작품을 본 많은 ‘우리’들이 이 두 여성과 함께 연대하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기 위해서...

“붓으로 되살아나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



| 초상화 공모전 대상 수상자 작품



◀ 연미당 (작조은비)

| 작품 소개

연미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적 선전위원회’와 ‘상해 한국 여자 청년동맹’ 등에서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그녀는 독립운동가 ‘연병환’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독립운동에 힘썼으며,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폭탄을 만들고 독립운동가인 남편을 대신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맡는 등의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업적을 기리고 그녀의 정신을 담고자 제작된 초상화 속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녀의 두 눈은, 독립운동에 대한 그녀의 굳건한 정신과 그녀의 삶을 담아내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연미당’이라는 과거의 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취하고 있다.

기념식 및 시상식

| 일시 2020년 8월 14일 | 장소 알과 핵 소극장

2020년 08월 14일(금) 알과 핵 소극장에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문화 예술 공모전의 시상식과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많은 분들의 축하와 박수 속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다 함께 주제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김희선 이사장의 인사말



기념식 축하공연



독백 대회 대상 수상자 김미성(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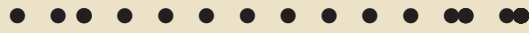
초상화 공모전 대상 수상자 조은비(가운데)



랩 대회 대상 수상팀 전진우&홍윤기(가운데)



단체 사진



대상 수상자 참가 소감문



전진우

랩을 처음 접해본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그때 당시 에픽하이의 5집 앨범이 한창 유행을 했고 그 중 one이라는 곡을 처음 접했다. 그 곡은 슬퍼하거나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장르에서는 보지 못했던 솔직함과 위로에 매료됐다. 그것을 계기로 이후 힙합을 계속 접하면서 힙합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모습, 저항의 모습 혹은 사랑의 모습 등등 다양한 형태와 표현방식의 랩을 접하면서 힙합이라는 장르에 더 깊게 빠져들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현재 힙합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의 힙합은 어떻게 또 표현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함과 동시에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랩 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고민 없이 지원하게 되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여성독립운동가분들을 조사했는데, 조사를 할수록 그 시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졌다. 나는 '그분들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 중 누군가는 일제가 통치하는 것에 찬성했을 것이며, 대부분은 그저 시키는 대로 따랐을 것이다. 나 또한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문득 래퍼 '김태균'님의 가사가 떠올랐다.

“무지와 질투 그리고 시대착오 역사적 반동 세력들과 난 닮아있어

누군가의 눈에 누군가의 눈엔 나 또한 희망이겠지 지금 이 문화에 있어”

어찌 보면 독립운동가들은 그 시대에서 욕을 받거나, 반동 세력, 멍청한 사람들로 불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힙합이라는 이미지, 그 문화 자체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돈을 좇거나, 메시지가 없는 랩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 나도 포래들처럼 생각 없이 놀고 싶을 때나, 기분전환을 할 때 이런 류의 음악을 즐겨 듣고 사랑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처음 one이라는 곡을 접했을 때 내가 느낀 힙합의 매력은 다른 것이었다. 생각을 하게 하거나, 가치를 찾는 것에서 나는 분명 랩에 빠지게 되었고, 현재 나는 그런 음악을 듣거나 만들고 있지 않다. 이번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랩 대회는 여성독립운동가라는 역사적식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힙합이라는 문화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추고 신념을 지녀야 할지 깨닫게 해주는 정말 뜻깊은 대회였다. 그 시대의 여성독립운동가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꾸준히 지켜나갔듯이, 나도 무엇이 옳은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상 수상자 참가 소감문



김미성

“내가 가진 재능이 좋은 영향력이 될 순 없을까?”

저는 한예중 연기와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연기를 통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공연을 선택할 때도 정치와 사회, 젠더 문제 등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 2월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한 해를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독백 대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대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하였고 졸업하기 전 올해 마지막으로 참가 자격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독백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알기 위해 서점과 도서관을 찾아 헤맨 끝에 몇 권 안 되는 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남성 독립운동가에 비해 여성독립운동가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저 역시 유관순 열사 외에는 알고 있는 여성독립운동가가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 독립 호소를 위해서 무명지 자르고 조선 총독 암살에 가담한 ‘남자현’
- 17세에 유관순 열사처럼 만세 시위를 하다 옥에서 순국한 ‘동풍신’
-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의 회장이자 한국의 여성들에게 교육과 독립운동에 대한 정신을 고취시킨 ‘김마리아’
- 임신한 몸으로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진 ‘안경신’
- 기생이었지만 수원 3.1혁명 주도한 독립운동가 ‘김향화’
- 일제의 심장에 폭탄을 터뜨릴 일념으로 조선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된 ‘권기옥’
- 개성 일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의 선두에서 활약한 서대문 형무소 큰 언니 ‘어윤희’ 등, 책을 읽으며 비로소 여성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열사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방면에서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여성독립운동가분들이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 ‘내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살았다라면 독립운동을 하며 나 역시 올바른 위인과 같이 되었을거야!’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책을 읽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고문을 당하였는지를 알고 나니 ‘나는 작은 바늘에 손가락이 찢려도 아프다고 난리인데 저런 모진 고문들을 견디며 끝까지 독립을 위해 싸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을 되찾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고, 당대에 친일을 하였던 사람들은 그 후손들까지 부를 누리며 평평거리고 사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고문으로 아이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고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이 느껴지며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수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외국어를 배워 당대의 상황을 타국에 알리고 남, 여 독립운동가들의 만세 시위와 다방면의 독립운동을 통해 우리는 자주 민족임을 만방에 알림으로써 광복을 맞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세상에 편히 공부를 하며 살 수 있는 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으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저는 개성 일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의 선두로 활약한 서대문형무소 큰 언니 ‘어윤희’ 열사를 모티브로 하여 독백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일제의 총칼에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맞선 어윤희 열사의 심정과 당시의 상황을 큰 틀로 잡고, 개성 일대에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기까지의 대사들을 상상을 통해 덧붙여 나갔습니다. 또, 친일파 이완용이 만세운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문과 대한 여자 독립선언서 전문을 참고하며 독백을 만들었습니다.

예선은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제출하게 되면서 다른 참가자들의 연기를 볼 수 없었지만 본선 무대에서 본선 진출자들의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항일여성 독백 대회의 본선 무대는 마냥 경쟁을 앞다투는 장이 아닌 책을 읽으며 알게 된 김향화, 남자현, 권기옥 열사 외 다수의 인물들을 참가자들의 연기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었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여성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는 뜨거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았는데 저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큰 상도 받고 박수를 받으니 감사하면서도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런 제가 독립운동가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도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창 시절의 종지부를 찍으며, 제가 가진 재능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제 꿈이 이번 대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많은 독립운동가분들과,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항일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회’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최우수상 수상자 참가 소감문



길혜연

우리 곁의 암소음을 들으며

사실은 조금 지쳐있던 때였다. 나른한 더위가 여유를 만들어주기에 여름은 사계절 중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지만 이번 여름은 달랐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져 버린 일상으로 여름의 여유는 지독한 권태로 느껴졌고 무기력에 당위가 생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매일같이 쓰는 일기는 어제와 오늘의 내용이 다를 바 없었고 우울이 몰려올 때만 펜을 들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을 쓰면 우울해졌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그랬던 것 같다. 매일 같이 일어나는 여성 대상의 범죄... 사건 사고들. 아주 오래전부터 일상을 침범해온 여성 혐오(misogyny) 팬데믹... 수많은 목소리가 있었고 그 목소리를 묵인해 온 역사도 함께 드러났다. 끈질긴 바이러스처럼 퍼져있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은 그렇게 나의 양팔을 묶어 놓고 있었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여성이다. “글 쓰는 여성은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던 시대가 있었다. 다행히도 나는 누구든 글을 쓸 수 있고, 주변의 많은 여성 창작자들과 자유롭게 연대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되기까지 숱한 고난과 희생이 있었다.

글을 쓰며 살아가는 동안 절대 그 역사를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투쟁하는 여성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무기력을 짓누르고 피어올랐다. 사회적으로 옳은 움직임을 주도한 이를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른다. 움직임을 주도한 이와 그 움직임 안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 생각했다. 조명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고 남성중심주의에 맞섰다.

두 배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이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일제로 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남성 위인들의 뒤에 가려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의 고행은 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을까? 시나리오의 기획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여성독립운동가를 찾아보다 ‘정철성’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칠성, 일곱 개의 별이라는 뜻이었다. 정철성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깨어있었던 인물이었다. ‘독립’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였다.

또한 무산계급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힘썼던 사회주의자 페미니스트였다. 기녀라는 계급과 조선 인이라는 민족성,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지하고 '다름'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의 삶과 정신을 알고 싶었다.

그 시대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정철성이라는 인물을 조명하면서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한 인물을 다루고 싶었다. 어려서부터 기생이라는 예인(藝人)으로 살았던 정철성처럼 현대 이야기의 '강한별'은 아역배우 시기를 보내고 성인 연기자가 된 인물로 나온다.

여자 배우로서 겪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인물이다.

정철성과 강한별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투쟁한다. 인간의 권리를 위해 여성의 권리를 위해. 두 인물은 시나리오 속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각자의 꿈은 신념이 시대를 넘어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북두칠성의 목소리>는 해방의 길로 향하는 지표가 되었던 정철성과 현재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용기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어 플러그를 빼고 고요한 작업 공간에서 벗어나 카페로 향했다. 카페의 음악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작업에 집중하게 되면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잠시 느슨해지면 소리가 들렸다. 그때 문득 집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여성의 목소리는 측정하려 하지 않은 암소음과 같았다.

측정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소리(소음). 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이면 선명해지는 진실,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목소리를 내라고 말하기 이전에 암소음이 된 목소리를 들으려는 움직임이 많아져야 한다. 목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존재 해왔기에. 그것이 이 펜 테믹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쓰고, 쓰고 또 쓰기. 이런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의 공모전을 개최해 주신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언제나 나를 응원 해주는 오인부부 친구들과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대상 수상자 참가 소감문

조은비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공모전을 찾아보는 것부터 출발했다. 그러다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공모전이라는 대회를 발견하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독립운동가라는 단어에도 물론 눈길이 갔지만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라는 단어에 눈길이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인터넷, 책등에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들의 이름이 현재 기억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고 또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름도 없이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그동안 알지도, 알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몰랐던 여성 독립운동가분들에 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다가 연미당 선생님을 알게 되어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었다. 연미당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적선전 위원회와 상해 한국 여자청년 동맹 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신데,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을 만들고 독립운동가인 남편을 대신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맡으며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하셨다는 것이 무척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녀의 업적을 기리고 그녀의 정신을 그림에 담고자 제작된 초상화 속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녀의 두 눈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그녀의 굳건한 정신과 그녀의 삶을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다음 세대에게 연미당이라는 과거의 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그림들은 공원에 전시되었는데, 나 또한 그곳에 가서 다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 각자의 개성대로 표현된 초상화들을 감상하며 이 공모전이 개최된 이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대회를 준비하기 전의 나처럼 그분들의 존재조차 몰랐을 관람객들에게 그들의 얼굴을 알리며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여성 독립운동가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데에 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공모전의 한 부분으로써 참여한 것이 매우 영광스러웠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알리는데 더욱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주제공연> “여명 1919”



| 일시 2020년 8월 6일~8월 16일 | 장소 알과 핵 소극장



연출가 제작노트

기억하고 공감하고 행동하다

- 연출가 이 일 영

새벽, 밤, 어둠 그리고 빛, 긴 밤 그리고 다시 밝아 오는 새벽. 대한민국은 많은 밤이 있었고, 많은 새벽을 기다렸다.

새벽에 떠오르는 여명을 기다리며 긴 밤을 보내던 1919, 연극은 시작된다.

1919, 여명을 바라며 혁명은 시작되었고

1945, 긴 밤을 거치고 여명은 찾아왔다.

1950, 형제에게 총을 겨누는 비극을 지나

1960, 국민의 주권을 위해 다시 일어났고

1980, 또 다른 독재와 맞서 싸웠으며

1987, 부르짖고 투쟁하였다

2020, 현재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아픔과 눈물, 땀이 어우러지며 태어났다.

우리는 100년의 세월을 관통하기 위해 ‘할머니’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극을 전개하였다.

우리가 만든 장면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찾고 공부했으며 많은 이해와 공감을 바라며 끊임없이 침을 튀기고 땀 흘리며 장면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유하는 오늘은, 우리들의 손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이뤄지기까지 일생을 바친 과거의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오늘이 과거가 될 때 내일을 살아갈 자들에게 어떤 내일을 함께 할지 고민하며,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정한 공연예술계의 상황 속에서도 100년 전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긴 시간 헌신 해 준 배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기억하고,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구성의도

올해는 광복 75주년, 한국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해에 우리 역사들을 총체극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국가의 큰 기념일(역사)을 되돌아보길 기원합니다.

2020년 광복절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점을 통찰시켜보고자 합니다.

과연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존재했을까?

“연극은 동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국 근현대사의 100년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100년을 지나 도착한 지금, 이곳. 또 다른 100년으로 이어질 이곳, 지금. 그 현장에서 3·1만세운동의 뜨거운 함성을 빌려 100년을 향해 지나온 100년을 외친다.”

“100년 전 나의 이름인 ‘우리’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 ● ● ● ● ● ● ● ● ● 100년의 시간, ●

연극으로 기록하다

여명 1919 시놉시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지만,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위해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내일을 위해 생을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모든 역사의 요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 “연극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기에 우리는 다시금 역사를 기억하고 똑같은 일이 답습되지 않도록 현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순간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약속해야 할 순간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술로서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려고 합니다.

일제 탄압, 한국전쟁, 민주 항쟁, 이산가족, 그리고 현대의 대두되는 문제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수많은 것들과 마주쳐 도달한 지금 우리는 수많은 숙제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100년의 시간들의 자취와 웃고 울며 함께한 그 시절들의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함께한 이야기’로서 관객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1919년부터 2020년의 역사를 재현시켜 지금의 우리들에 대해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려 합니다.

함께한 사람들

작 : 송형중 **연출**: 이일영 **예술감독**: 노은미
배우: 임정은 이영훈 이은성 김경록 배문성 정민철
 서범준 김경훈 한건희 이제석 최용철 이민석
 박제성 주민영 김동훈 곽민제 장인아 서인아
 송민선 강승연 전지윤 홍예지 최승아 곽유진
기획: 남상혁 **제작감독**: 김민재 **조명감독**: 박원광
음악감독: 최경훈 **뷰티·분장디자이너**: 손지연
안무지도: 김선이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오늘 그들 여기에...”

| 일시 2020년 8월 11일(화)~12일(수) | 장소 배재 어린이 공원



배재 어린이 공원에 전시된 초상화들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명단



초상화 감상하는 시민들



초상화 감상하는 시민들



배재 어린이 공원에 전시된 초상화들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항일에서 통일로”



2020년 0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3호 추모문화제 문화공모전 수상자들과 문화제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와 그 정신을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4박 5일간의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떠났다. 답사지역은 제주, 밀양, 광주, 홍성, 천안 5 곳이다. 이번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가 5,000년의 장구한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지켜져 왔는지 바로 알고, 이것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미래 시대의 주인공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항일에서 통일로 DAY 1

(제주공항 ▶ 제주 항일 기념관 ▶ 제주 4.3 평화기념관 ▶ 박찬식 (전, 제주학연구센터장) 강연)



제주공항 단체사진



제주 항일 기념관



제주 4.3평화공원 단체사진



박찬식(전, 제주학 연구센터장) 강연

항일에서 통일로 DAY 2

제주해녀 항쟁기념공원 ▶ 일본군 해안진지, 일본군 비행장(알뜨르 비행장) ▶ 첫알오름 일본군 동굴진지



제주해녀 박물관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탑



제주 알뜨르 비행장



제주 알뜨르 비행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묵념하는 모습



희생자 추모비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항일에서 통일로 DAY 3

여성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 묘소 ▶ 밀양 독립운동 기념관 ▶ 이경순(전남대 명예교수)강연



밀양 박차정 의사 묘소



밀양 박차정 의사 묘소에서 절하는 모습



밀양 시립 박물관 단체사진



밀양 시립 박물관 관람



이경순(전남대 명예교수) 강연



이경순(전남대 명예교수) 강연 후 단체사진

항일에서 통일로 DAY 4

수피아여학교 만세운동지 ▶ 광주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 홍성 홍예공원 항일 여성상



광주 수피아여학교 3.1만세운동 기념탑



홍인화 고려인 인문사회 연구소장이 수피아 여학교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양혜경 분과 위원장이 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 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앞에서 묵념



충남 홍예공원의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혁명전야'



충남 홍예공원 독립운동가 거리의 유관순 열사 동상 앞에서 단체사진

항일에서 통일로 DAY 5

천안 독립기념관 ▶ 천안 유관순기념관 / 아우내 만세운동지



천안 독립기념관 전시관 관람



천안 독립기념관 단체사진



겨레의 탑을 지나는 모습



독립기념관 태극기 사이에서



천안 유관순 열사의 생가



천안 유관순 열사의 생가에서 단체사진

4박 5일의 국내 답사를 마치며

김현숙(역사교사, 회원)

8월 3일쯤 나는 메신저를 통해 항일여성독립운동가 국내 답사에 대한 알림을 받았다. 일정은 제주에서 임진각까지 가는 코스이고, 주제는 “항일에서 통일로”였다. 국내 답사 일정은 4박 5일(8월 18일~22일)의 꽤 긴 시간과 여정이어서 항일여성의 발자취를 찾는 대장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취소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다행히 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무국의 연락을 받아 짐을 꾸리며, 국내 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설렘과 올해 어려운 여건으로 사업회의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김포공항으로 집결했다.

첫날 방문한 곳은 제주 해녀 항쟁 기념공원, 제주 4·3 평화기념관이었다. 저녁에는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 항일투쟁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제주는 아름다운 섬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 관리들의 유배지와 궁궐의 진상 물품을 바쳐야 했던 고생스러웠던 곳이기도 했다. 제주의 역사에도 1909년 유생들의 의병투쟁과 1918년 법정사 승려들의 항일투쟁, 1919년 조

천지역의 만세운동이 있었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여성으로 강평국, 고수선, 최정숙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주 신성여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서울에서 경성여고와 진명여고를 졸업하여 제주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3·1운동을 주도한 제주 항일운동의 지도자였다. 이후에도 제주지역에서 항일운동이 일어난 이우가 유학파 지도자들이 교육운동을 통해서 학생과 청년들을 계몽하여 주도적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이 가운데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는 계기도 되었다고 한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일제가 여러 물자로 활용하는 가성비 높은 우뭇가사리 채취를 위해 제주 해녀를 고용하여 여러 지역에 출가시켜 저임금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여성 세 분이 항일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둘째 날은 일본군 해안 진지와 일본군 비행장이 있는 모슬포로 갔다. 일본은 전쟁 말기 제주도에

7만 명을 주둔시켰고, 알프르 비행장 격납고와 활주로를 강제 징용을 통해 만들고 중일전쟁을 일으켜 난징을 폭격하는 기지로 이용하였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첫 알오름에 올라 일본군 고산포 진지와 동굴을 보고 일본은 제주도를 오키나와보다 중요한 전략적 기지로 생각했던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첫알오름 가기 전에 백조일손이라는 슬픈 이야기가 남아있는 제주 4·3학살터인 증거인멸의 장소를 보았다. 원래는 일본군 폭발물이 묻힌 곳인데, 해방 이후 폭발물을 제거하고 웅덩이로 남아있는 곳에 제주 예비검속에 당한 사람들이 1950년 8월 20일 트럭에 싣려 학살지로 가면서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고무신 등 유품을 길에 던져 알리면서 의문의 죽임을 당한 구덩이가 잇을 수가 없었다. 죽는 이유도, 재판 절차도 없이 죽어야만 했던 민간인 학살에 눈물이 흘렀다. 제주하면 4·3 사건을 늘 떠올린다. 아직 여기에 어떠한 정식 명칭도 붙이지 못하였

고 정부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공원을 만든 것도 2003년도였다. 제주를 방문할 때면 늘 마음이 아픈 곳이기도 하다.

셋째 날은 제주를 떠나 김해에서 밀양으로 박차정 지사의 묘를 찾아갔다. 밀양은 조선 의용대의 대장인 김원봉의 고향이며, 그의 부인 박차정 지사가 묻힌 곳이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다. 지사의 묘는 보통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가 있는 산언덕에 있었다. 초라하고 작은 무덤이었다. 박차정 지사의 활동은 항일여성운동사에 굽직한 상징성이 있는데, 후사도 없이 밀양 산언덕에 초라하게 계신 것이 마음에 걸렸고 조만간 국립현충원에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참을 달려 광주로 갔다. 광주지회에서 여

러분이 나오셔서 적극적인 안내를 해주셨고 5·18의 중심지인 금남로, 충장로에 대한 어원과 호남의병의 활동 및 광주 3·1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대한 강의도 들었다. 넷째 날, 수피아 여고의 만세 준비 시위지를 둘러보며 22분의 여성 지도자의 해설을 들었고 전남여고의 역사관을 방문하여 11인의 소녀회의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광주일고를 방문하여 광주학생운동의 상징인 기념탑에서 사진 촬영도 하였다, 광주지역의 항일운동의 중심은 학생임을 다시 느끼게 하였다.

망월동 5.18묘역도 참배하여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광주를 두 번째 방문하였지만, 항상 마음에 빛을 진 곳이라는 생각

이 들었다. 다음으로 광주를 떠나 충남 홍예공원에서 항일여성 기념 조각상을 둘러보고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갔다. 독립기념관에서 “나는 독립군이다”를 관람하고 난 뒤 유관순 생가를 방문하고 아우내 장터에서 순대 국밥을 먹고 서울로 올라왔다. 4박 5일간의 국내 답사를 하며 누군가는 ‘제주에서 천안까지 구경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역사 교사인 나는 이번 여정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주제로 나 또한 공부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선 여성 독립운동가를 생각하며, 이 시대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할 기회를 준 고마운 답사로 기억할 것 같다. 끝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항일여성독립기념사업회에 감사드린다.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기행문

전지윤(여명 1919 배우)

2020년 8월, 올해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선열들이 목숨 바쳐 투쟁했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해 제주도로 향하던 길이다.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서자 제주 4.3사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비극의 역사, 학살의 현장을 생각하니 가슴이 짓눌려 울컥했다. 이번 답사를 통해 그들의 아픔을 몸소 느끼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버스를 타고 제주 항일기념관을 거쳐 제주 4.3평화공원 기념관에 도착했다. 학살과 공포, 희생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지만 오히려 고요하고 평안했다.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라는 문구가 나를 안내하며 제주의 아픔을 대변해 주었다. 일본의 만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몰고 온 또 다른 희생. 해방과 좌절. 같은 민족을 잔인하게 목숨까지 빼앗아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흔적들에 피냄새가 진동했다. 이것이 일본의 만행과 무엇이 다른가. 우린 왜 이

런 사건들을 마주해야만 했을까. 처절한 제주의 아픔을 마주하니 분통이 터졌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추념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역사 책에서 봤던 얇은 지식으로 이들의 아픔과 마주하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해녀들의 항일투쟁정신은 어떨까. 연두막 동산에 있는 해녀박물관으로 향했지만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해녀 복장으로 빗창과 태극기를 들고 부릅뜬 두 눈을 한 기념탑은 그들의 투쟁정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걸음을 멈춰 잠시 머리를 조아린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기념탑 옆에 해녀노래 시비(詩碑)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녀항일운동으로 옥살이를 하던 강관순(康寬順)이 지은 노래이다. 일제의 수탈에 악착같이 맞서 싸운 해녀들. 그들의 피와 땀을 너무나

도 쉽게 착취해가는 일제의 만행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의 처절한 외침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가슴속으로 다시 한번 부른다.

‘一,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알아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二,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 되면 돌아와 어린아이 젓 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 종일 일했나 번 것은 기막혀 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른다’

‘三,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코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고 파도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조선 각처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四, 배움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 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

해간다 가이없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일본의 수탈과 만행, 민족학살이 교차되며 애통하고 분통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큰 한숨을 내쉬었지만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 잠깐 흐느끼는 감정이 아니길 바라며 기억하자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긴다.

숙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자 한없이 넓고 푸른 바다가 보였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다인데 아까 봤던 시비의 해녀들 모습이 아른거렸다. 살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끝없이 투쟁해야만 했던 해녀들의 삶을 거센 파도가 대신 보여주는 듯 철썩거렸다.

학살로 버무려진 제주에서의 답사를 마치고 밀양 박차정의사 묘지로 향했다.

연극 <여명 1919>를 하기 전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잘 몰랐고 알고 있는 이름도 얼마 되지 않았다. 연극을 통해 그들의 외침을 하나하나 공부해가며 그들의 삶을 알게 되었을 때 무지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했다.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투쟁과 희생 덕분인데.. 버스 안에서 박

차정의사에 대해 잠시 찾아본다.

격렬하게 투쟁하며 싸웠지만 끝내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눈을 감은 그녀. 안타까움과 감사함이 가슴을 메웠다. 뜨거운 햇살과 함께 오르막길을 올라 박차정의사 묘지에 도착했다. 이 햇살보다 더 뜨겁게 투쟁했던 그녀의 삶 앞에서 우린 묵념했다. 선열들의 투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묘를 둘러싸 파란 천을 잡고 둥글게 돌며 노래를 불렀다. 공연을 올리기 전, 우리가 앞서 간 곳들을 미리 갔었다 라면 그들의 정신과 의지를 조금 더 진실 된 마음으로 무대 위에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며 광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전남도청 앞, 혁명을 위해 투쟁했던 거리를 직접 거니니 가슴이 뭉클했다. 이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을까. 도청 건물 곳곳에 벗겨진 페인트 자국이 마치 총탄을 맞은 자국처럼 보였다. 5.18 추모 공원에 들어서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우리를 안내하듯 엄중하게 깔려있었다. 그들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던 탓일까 알 수 없는 벽참이 몰려왔다. 목숨 걸고 투쟁하던 그들에게 묵념을 전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눈물이 났다. 연극에서 표현하던 그들의 삶을 피부로 느껴서 그런 것인가. 잊지 못할 경이

로운 순간이다. 묵념을 마치고 배우들끼리 몇 마디 주고받았다.

연습할 때, 우리 배우들이 이곳에 와서 역사의 현장을 몸소 느껴봤더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다. 그들이 열렬히 투쟁하고 희생되었던 공간에 직접 와보니 내가 공연에서 표현한 이들의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가벼웠다는 것을 깨닫는다.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답사의 마지막 도착지인 천안에서 독립기념관과 아우내 만세운동지를 끝으로 4박 5일의 답사를 마쳤다. 서울로 도착한 버스에서 내리자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억세게 내렸다. 4박 5일 동안 보았던 투쟁의 울분이 한을 푸는 듯 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들. 추위와 가난 속에서 푹 푹 뭉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바이다. 그들이 느낀 환멸, 분노, 슬픔, 고통 잊지 말자. 그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항일에서 통일로 기행문

안기현(독백 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지난 8월 18일, 나에게 뜻밖의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항일여성독립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주최하는 ‘항일에서 통일로’ 국내 독립운동의 역사, 문화 유적지 답사를 창작 독백 대회 수상자 자격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쪽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오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근현대사와는 항상 거리가 있었던 나에게는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더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답사의 첫 시작은 제주도였다.

나는 먼저 지금 이 기행문을 읽고 있는 당신께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묻고 싶다. 제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냥 행복하기만 한 휴양지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답사를 가기 전의 나 또한 같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에 도착해 내가 마주한 그곳의 역사들은 나의 마음과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제주도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접어들던 시기에 제주도를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본거지로 삼았다. 이 아름다운 섬을 훼손하면서 군사기지를 만들고, 전쟁을 위한 각종 시설을 만들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시설들을 파괴하고 제주도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제강점기 시절의 상처가 담긴 많은 흔적들이 제주도에 남아있다. 아마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본다면, 곳곳에 일제가 만든 시설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주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당시 일본이 실제로 만들어 사용했던 알뜨르 비행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장소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였을 때 우리의 소중한 조국 땅을 일본인들에게 빼앗겨 이용당했던 아픔이 내게 더욱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외에도 여러 기념관 등을 방문하며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제주도의 아픈 역사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우리

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도를 즐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불굴의 의지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셨던 우리 조상님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의 삶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산, 밀양, 광주, 천안에서도 많은 기념관, 전시관, 그리고 유적지 등을 방문했는데. 모든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나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가슴이 점점 뜨거워져 왔다.

우리의 선조들께서 독립을 이루어주셨으니 이제 우리 세대의 임무는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조상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또한 한민족이 다시 쌍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답사 일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반쪽짜리다. 언젠가는 제주에서 파주까지가 아닌 제주에서 함경북도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답사 일정이 완성되는 날을 간절히 기다려본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반민특위 행사

• 일자 2020년 6월 6일



공동선언 20주년 도라산역 문익환 시비 제막식

• 일자 2020년 6월 15일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탑 방문

• 일자 2020년 6월 21일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 73주기 추모식

• 일자 2020년 7월 19일



'73년 만에 첫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부의장 초청 간담회

• 일자 2020년 7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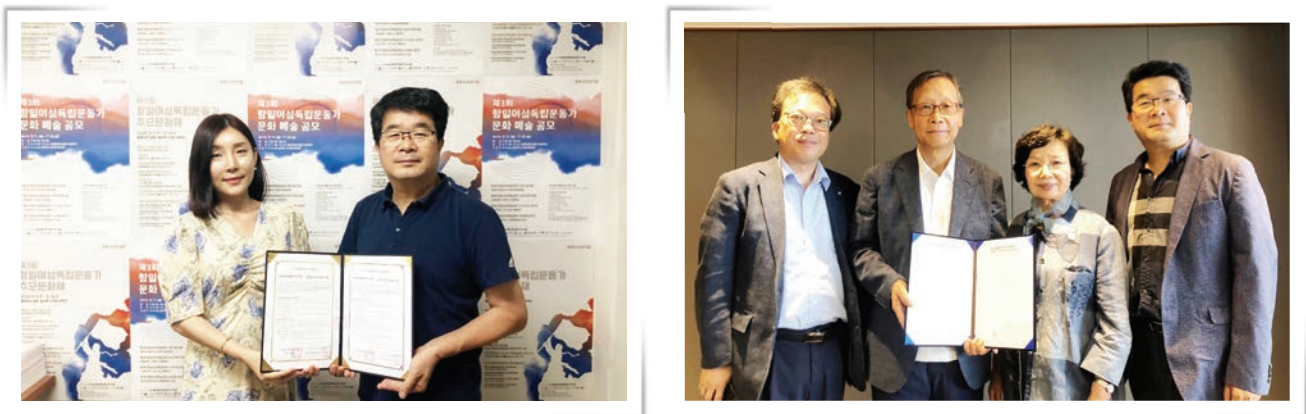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서포터즈 1기 발대식



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 협약 체결

서울문화사, MOU 협약 체결



개식이, 여성독립운동가 티셔츠 판매 수익금 기부



GAESIGI

X



(사) 통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서울 스토어, 광복 75주년 기념 기부 챌린지

광복절 75주년 기념 기부 챌린지

오늘,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08.14 ~ 08.17

우리가 기억하는 여성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여성독립운동가의 이름은 유관순 역사를 비롯하여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꼭 기억해야 할 항일여성독립운동가 75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친구 할인코드 기부 챌린지에 참여해 보세요.

본 기부 챌린지는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여성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여성 경제신문, “오늘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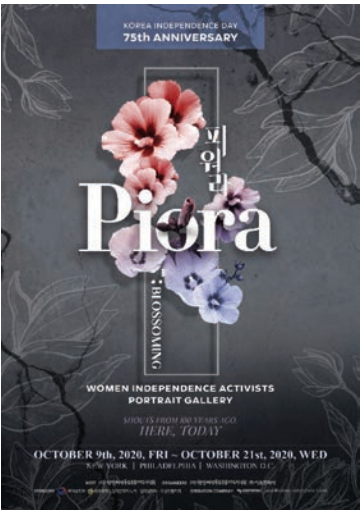
여성경제신문-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공동 기획

대선 옷 입어드려요! 비대면 서비스 완성시대

여성독립운동가 75인

여성독립운동가 75인

10월의 사업



미국에서 열리는 독립운동, 광복 75주년 기념 전시회

“피워라(Piora)”

2020년,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하여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미국의 3개 도시에서 항일 여성 초상화전시 2020 미국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2020.10.09. ~ 2020.10.11. 뉴욕
- ▶ 2020.10.14. ~ 2020.10.16. 필라델피아
- ▶ 2020.10.19. ~ 2020.10.21. 워싱턴D.C.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6월 12일 상반기 제1차 운영위원회개최



8월 12일 광주전남지회 김행자 고문의 조부 '의사김범수 연구' 출판기념회 개최

Culture & art 14

**독립·통일에 헌신한
근대인 김범수**

박해현 교수 '의사 김범수 연구' 출간

1919년 3월 광주 만세운동 주도 육교
청년 사회운동 이념 초월 활동 주목
오늘 오후 5시 출판기념회도

박해현 초당대 출판교수는 광주·전남 3·1 운동사와 지역 의병사 등 기록이 없거나 불린 지역 항일사의 공적은 행적을 찾아 기록하는 작업과 결과물로 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했다.

최근 광주 3·1 운동사를 정리하던 차자는 한 인물을 주목했다. 그 주인공은 조국 독립과 통일을 위해 평생 헌신한 의사(醫師) 김범수(1889~1961) 선생이다.

'의사 김범수 연구'(박해현 지음) 고대 관련 연구 결과물이다. 김범수 선생은 1919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당시 '광주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다. 박 교수는 '독립의 길, 통일의 길'을 쓴 의사 김범수 '를 통해 우리 현대사의 한 줄기를 복원했다. 저자는 광주 3·1 운동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김범수 선생은 1919년 당시 공립의정전문학교 2학년 학생으로 광주 사범에 연이어 퇴학당한 장계 보상을 인도했다. 그는 1919년 3월 초 서울에서 광주사범 주동 세력과 경상에 사배되어 연다.

김범수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의사'로 자신을 칭했던 삶을 살았고 항일·사회운동들 통해 민에 애민을 실천하는 데

신 의사, 4장 민족 심어 양성 운동과 김범수, 5장 통일국가 수립의 뜨거운 열정과 좌절, 6장 조국의 현대사와 김범수, 7장 독립의 길, 통일의 길 등 선조한 의사(醫師) 등 모두 7장으로 구성했다. 김범수 선생의 희고 희은 삶은 물론이고 서간문·일기 등 그가 직접 쓴 어휘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운동가'이자 김범수의 삶을 체계적으로 사료함과 동시에 야기하기 조차된 흔적에 있는 자료를 유기적으로 엮어 책을 완성했다.

박해현 교수는 "김범수 선생의 삶을 관건으로 만들어 온 존재는 형과 함께 전남과 6년 남짓의 시간과 기억을 통해 재조명하게 한 분이 있다"며 "제가 찾아낸 사실과 그녀의 기억이 대부분 일치했고 특히 본사 시절 과정에서 김범수 선생의 저조가 박근혜와 김정은 같은 정치적 이 해순서 등 선생의 행적을 추적할 것은 인물을 찾아낸 것도 이번 연구의 또 다른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박해현 교수의 저서 '민족을 사랑한 의사 김범수 연구' 출판기념회는 12일 오후 5시 광주 사구 대극장 위디스홀 주에서 열린다.

[기고] 남도의병역사와 독립운동의 플랫폼 나누



◎명진 함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회장
입력 2020.06.14. 11:15 수정 2020.06.14. 13:59



명진 광주지부부회장 전남의병공원 나누유치 기여

“.....들의 100년 전의 함성 그대들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 개인 회원 ♥

강성종 김복순 김완순 김호근 문향숙 박창식 손덕수 양미강 이구영 이정기 임옥상 정춘생 최은규 강영준 김삼열 김운성 김희선 민경선 박태근 손 윤 양재원 이기탁 이정원 임용석 정춘숙 최정순 강원기 김삼웅 김운채 김혜라 민향선 박하은 손태수 양혜경 이길용 이정환 임은순 정택수 최정현 강정숙 김서경 김윤경 김행자 박경덕 박효은 손희영 양호준 이덕일 이종걸 임정희 정희영 최진섭 국경복 김선경 김은미 곽유진 박경목 박해숙 송보경 염락원 이동준 이주한 임준호 조수민 최진아 김경미 김선현 김인호 권성국 박국호 방국진 송주은 오상욱 이동철 이진규 임진택 조정식 최준영 김경순 김성호 김일옥 권태순 박금란 방승환 송아람 오수환 이민열 이진석 임현영 조희숙 최재호 김경실 김성훈 김일진 나유진 박남식 방영철 송현권 오세홍 이문석 이진숙 위기훈 주영석 최현철 김경옥 김세원 김자동 나종일 박삼규 방지영 송현석 오여주 이미경 이재희 장병화 지광희 최황열 김광준 김소진 김정화 남상만 박소리 배기성 신수정 오우숙 이미희 이찬희 장수인 차영조 표대연 김광희 김수미 김종민 남상혁 박순경 배성호 신상근 오재호 이미희 이창현 장유식 천병태 탁은지 김기봉 김순단 김종진 남성현 박운학 배우진 신영숙 오철의 이민석 이항중 장정수 천신애 하명호 김도연 김시명 김지환 노다니엘 박윤옥 백소망 신은영 오화자 이민재 이현민 전경미 천정배 하지완 김동민 김우진 김지희 노명희 박은희 백정애 신재남 유승희 이보나 이현주 전기호 천혜진 한건희(요가) 김동훈 김옥미 김지희 노영숙 박원광 변경순 신종근 유인경 이상덕 이행자 전형진 최교익 한의성(강병구) 김명연 김옥순 김지희 노은미 박장우 서병남 신희주 유종일 이석문 이효식 정건하 최광호 함세웅 김명옥 김옥이 김진현 노은영 박정아 서보현 심소라 유준상 이석현 이효재 정동익 최라윤 한정수 김명주 김애영 김진후 노재훈 박정철 서찬휘 심용식 유창우 이상래 이화섭 정성호 최병일 함 진 김미희 김연옥 김찬수 명 진 박정희 서쌍원 안광진 유하영 이상철 이해경 정세균 최선량 홍사립 김민성 김영섭 김창한 문병호 박종문 서인아 안성례 유홍준 이승환 이희수 정순영 최성자 홍소연 김병국 김영조 김태관 문성근 박진호 설 훈 안재준 윤여운 이은경 임기상 정영진 최영환 홍정석 김병기 김명주 김태녕 문시안 박제성 성기훈 안해영 윤영전 이은주 임동건 정용설 최영희 황기흥 김병수 김영훈 김현숙 문인숙 박재정 성세정 안희정 윤현시 이은주2 임수빈 정원채 최용철 황수환 김보영 김예진 김현태 문인철 박재홍 성현진 양경순 이경순 이원표 임쌍금 정유경 최은정 황은혜 HARLFINGER OKPUN

♥ 단체/기업 회원 ♥

광복회 김여진목사기념회 김학규오광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요가 스포츠연맹 대한요가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월혁명회 서울시요가연합회 여천 흥남도장군기념사업회 우당이회기념사업회 의암선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인쇄출판새물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 (주)에너지파트너 지광희 통일맞이늦봄 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 해림교회 화운차문화협동조합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 장	김희선
대 표 이 사	송형종
이 사	강정숙 신영숙 이민석 정민우 김수미 김애영 노명희 도승이 박정희 이상덕 최성자 홍정석
감 사	이승환 홍미영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 장 : 신영숙 / 위원 : 강정숙 박창식 이선이 이숙화 이종민 이희수
기 획 사 업 분 과	위원장 : 남상만 / 위원 : 이승환 서인아
공 연 예 술 분 과	위원장 : 위기훈 / 위원 : 윤현식 양혜경 한정수 김지환 박소리
시 각 예 술 분 과	위원장 : 이구영 / 위원 : 이진석 양혜경 김서경 김운성
영 상 예 술 분 과	위원장 : 이민재 / 위원 : 권성국 임준호

홍 보 분 과	위원장 : 이은주 / 위원 : 박정희 송아람 박진호
청 년 미 래 분 과	위원장 : 최라윤 / 위원 : 남상혁 최용철 김태관 김소진 최선량 송현석 이동준
대 외 협 력 분 과	위원장 : 표대연 / 위원 : 박국호 김동현
대 외 사 업 분 과	위원장 : 이길용
전 시 기 획 분 과	위원장 : 양혜경
편 집 위 원 회	위원장 : 김희선 / 위원 : 김수미 박창식 송형종 신영숙 이은주
사 무 국	팀장 : 박소리 / 기획사업팀 PD : 박건욱
서 포 터 즈	김현재 박재호 유 진 이승미 정수정
광 주 전 남 지 회	회장 : 명 진 / 부회장 : 박태균



• 주최·주관 (사)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문의 02)924-0660

• 홈페이지 <http://www.herstorykorea.org>

• 후원  국가보훈처

• 이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